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ontainer lines reinstate sailings as demand picks up

컨테이너선들이 태평양과 아시아-지중해 노선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5월 초 운항을 중단했던 선대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 시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에는 물동량이 더 증가해야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미포, 중국과 LPG선 2척 수주 경쟁

현대미포조선과 중국 Jiangnan Shipyard가 인도네시아 Pertamina Shipping의 22,000CBM급 LPG추진 가스운반선 3척을 두고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ertamina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가는 척 당 4,500~5,000만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우조선 FSRU 선주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다고 공시한 LNG FSRU의 선주는 일본 MOL이라고 보도됨. 해당 FSRU는 북해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독일 LNG 거대 업체 Uniper와 Wilhelmshaven에 들어설 신규 LNG 수입 터미널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로템, 4,330억 규모 이집트 전동차 초도 물량 출고

현대로템이 제작 중인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의 초도 물량이 출고됐다고 보도됨. 계약 금액은 4,330억원 규모로 현대로템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짐. 현대로템은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이달 첫 편성 납품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차량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서울경제)

미국, LNG 스윙프로듀서(수급조절국) 등극?

미국 원유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도 스윙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됨. 미국의 LNG 생산 능력과 공급량이 전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준인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수요부진으로 계약물량이 취소되면서 세계 LNG시장에 미국산 LNG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됨.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조선해양, 예멘 석유광구 투자금 소송에서 석유공사에 져

한국석유공사가 한화, 현대중공업과 한국컨소시엄을 결성하고 2006년 7월 예멘 석유광구 운영권의 50%를 사들인 뒤 광구 운영에 실패해 두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 건에 대해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광구 운영권 15%의 대가로 지분매입비 1650만 달러와 보상금 1730만 달러를 한국석유공사에 지급한 바 있음. (비즈니스포스트)